

지역 소식통

김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김제 장학재단에 기탁

김제시 환경과(과장 오형석)는 지난 18일 2019년도 상·하반기 미수령분 및 2020년도 상반기에 적립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947만7,230원을 기탁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김제시 장학재단 기탁은 2010년에 시작해 올해 31번째로 진행됐고 누적 금액은 1억2,0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기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사업에 헌신해온 그린리더협회 회 사이사회장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자 736세대를 대신해 김제시 장학재단에 기탁했으며 김제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전반에 쓰여질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현금, 김제사랑 상품권, 기부, 그린카드)를 받는 것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김제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

김제 희망남포작은도서관  
전북도 운영평가 '우수'

김제시 희망남포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공사립 작은도서관 340개소(공립 139, 사립 201)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변화 및 활성화 노력 등이 평가 됐다.

시골 작은도서관이 도시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서배달 원스톱 서비스와 남포어린이집, 김제시 다문화센터, 행동하는 청년협동조합, 생활체육회 등 김제시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방역수칙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완주군 청사 방역 인력 6인의 소망, “하루 빨리 코로나19 종식돼 일상에 복귀했으면...”  
올해 4월 부터 8개월간 ‘철벽 방어’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스마트 에어샤워기 등 활용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청사 출입구는 코로나19 방역의 집합체이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 차단·정화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에어샤워기와 큐알(QR)코드 판독기, 체온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 출입명부 작성일지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매일 1천여 명이 드나드는 출입문에는 ‘6인의 방역인력’이 철벽 방역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이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희망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배치됐다.

만형 격인 양시우 씨(48·완주군 삼례읍)는 군청사 출입구 방역의 소사(小使)이다. 명상교육 전문회사에서 20여 년 근무하다 2년 전에 낙향해 자신의 명상센터를 오픈하려다 코로나19가 터져 뜻하지 않게 실직자가 돼 처음부터 이곳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다.

양 씨는 완주군이 전북 광역·기초단체 청사 중에서 처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매일 1천여 명이 드나드는 완주군청사 출입문에는 ‘6인의 방역인력’이 철벽 방역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 방역의 소사 양시우 씨이다.

도입했던 지난 8월 중순을 뚜렷이 기억한다. 300여 군청 직원을 제외해도 매일 민원인만 600여 명이 드나들다 보니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다.

어르신들의 핸드폰에 일일이 QR코드를 깔아주고 설명하는 격무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한차례 휴역을 치르며 새 시스템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지난 8월 청사 방역에 합류한 20대의 J씨(23)도 “3~4개월

전만 해도 불편하다고 다소 짜증을 내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집단감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달라진 방역인식을 언급했다. 그는 청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방역을 잘 하고 있다며 ‘엄지 척’을 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5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중 실시

일반 병의원 대비 50% 저렴한 9만원에 보건지소에서 접종 가능

완주군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55세 이상 주민들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포진 접종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55세 이상 완주군민이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문의해 접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접종비용은 9만원이며 병의원에 비해 50%가량 저렴하다. 신분증을 지참

하고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면 되며, 각 읍·면 보건지소마다 접종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지소에 접종 일정 및 백신 보유 현황을 전화로 확인 후 접종 가능하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숨어 지내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대상포진 예방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성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는 것이 좋다.

대상포진은 조기치료 및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예방 접종을 권장하지만, 고가의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 예방접종실(063-290-3049~3050)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광하디엔씨,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하디엔씨(주)는 지난 18일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광하디엔씨(주)는 김제시 신흥동 주상복합건물 도원 리얼시아 사업시행사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은 정성을 보냈다”며 기탁의사를 밝혔다.

김제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소득 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광하디엔씨(주)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광화면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내년 1월 31일까지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김제시 광화면, 다양한 물품과 후원금 기부 이어져 ‘흔흔’

김제시 광화면(면장 정우근)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를 슬로건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조기에 목표액의 140% 이상을 초과했다.

광화면에서는 또한 성금뿐만 아니라 마스크 3,100장, 유아청 1,500kg, 쌀 20포, 보온장갑 130개 등 다양한 물품과 후원금이 기부되며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주변에 훈

훈함을 전하고 있다. 한편 광화면 지사협에서는 한 해 동안 밀반찬 봉사, 생필품 꾸러미, 삼계탕 나눔 행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복지기동대는 고장난 가스레인지·기름보일러 교체, 출입문 및 방충망 설치, 연탄나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우근 광화면장은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과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완주군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올해 21억원 집행에 이어 2021년에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243개를 정비했다.

현재 존치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1~2단계로 나누고, 이중 1단계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액 약 207억 원을 2025년까지 보상 완료한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인 삼례중학교 진입도로 외 2개소를 급원에 준공한다.

삼례·봉동 대로 1-3호선 외 10개소를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소방서는 차량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들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 운전석에서 손에 닿을만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김제소방서는 차량 화재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